



넌 혼자가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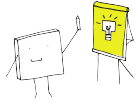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 * 글 : 서성자
- * 그림 : 유재엽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00쪽
- * 대상 : 초등학생

· 책 소개

《넌 혼자가 아니야》 동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나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 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다섯 편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동화집입니다. 작가가 오랜 시간 교직에 있을 때의 아이들 이야기부터 작가가 기르는 고양이를 통해 영감을 받은 이야기까지 우리 마음속을 따뜻하게 비춰 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답니다.

· 주요 독후활동

넌 혼자가 아니야	책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넌 혼자가 아니야 · 마지막 쪽지 · 도우미 마중 · 아무도 없을 때 · 되돌아 달린 아이
	사고력 쑥쑥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해서 표현하기
	창의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호를 조사해요 · 나눔 계획 세우기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 (1~2) 《넌 혼자가 아니야》의 책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표지의 그림은 어떤 장면을 묘사한 것 같나요?

2. 결승전에 함께 들어오는 두 친구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두 친구의 대화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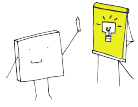
※ (3~4) 《넌 혼자가 아니야》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함께여서 힘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과 마음

위급한 상황,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것 같은 때,
나를 지켜봐 준 친구.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조용히 나를 응원해 준 친구.
나는 미처 몰랐지만,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다섯 동화를 만나 보세요.

3.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 주면 어떨까요?

4. 나에게도 조용히 나를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모듬끼리 손 사인을 주고받는 성민에게 다은이가 ①빈정거리며 말했다.

- 다은이는 ②콧방귀를 꺾며 치맛자락을 획 모았다
- 우리 집이 이렇게 ③어수선하다는 건 아무도 모를 거다.
- 갈 수 없어 ④애태운 걸 생각하며 지금도 떨려.
- 가희가 ⑤손나팔을 불며 운동장을 향해 외쳤다.

(나) 우리는 물건들 틈에서 이런저런 추억거리를 찾아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 보세요.

① 빈정거리다

• •

㉠ 손을 입에다 대고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일.

② 콧방귀

• •

㉡ 몹시 답답하게 하거나 안타깝도록 속을 끓이다.

③ 어수선하다

• •

㉢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다.

④ 애태우다

• •

㉣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가지런하지 아니하고 마구 헝클어져 있다.

⑤ 손나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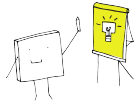
• •

㉤ 코로 나오는 숨을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리면서 불어내는 소리.

2. (나)의 밑줄 친 낱말 ‘틈’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이를 참고로, ‘틈’을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년 혼자가 아니야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다시 한 번 입을 열면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걸기나 해!”

다운이는 아저씨가 누르는 힘에 밀려 운동장 쪽으로 갔다.

천천히 걸으려 했지만 어느새 중간 뜰을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봐주길 바랐으나 내일 있을 현장 학습 때문인지 조용하기만 했다.

그때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성민이가 다가왔다.

“정다운, 이제 가냐?”

아저씨는 성민이가 다가오자 은근히 옆구리를 눌렀다. 성민이가 구세주처럼 반가웠지만, 다운이는 두 눈만 커다랗게 떴을 뿐이었다.

“문제지를 놓고 와서 말이야. 헤헤.”

성민이가 문제집을 흔들며 보였다. 다운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성민이가 바라 보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오므렸다 폈다.

(나) “엄마!”

다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아줌마 품으로 뛰어 들었다.

“아니, 너! 영어 학원에 안 가고 여기서 대체 뭣 하고 있는 거냐?”

아줌마가 다운이 등을 ‘딱’ 소리 나게 때렸다.

“선생님이세요? 이 녀석이 또 학원을 빼먹었다고 연락이 와서 정신없이 왔는데.”

아줌마가 아저씨에게 허리를 굽혔다.

“아, 저, 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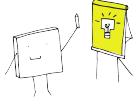
아저씨가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차 쪽으로 바삐 걸었다.

1. (가)에서 다운이가 성민이에게 보낸 사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2. (나)에서 다운이가 엄마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였나요?

3. 이야기는 성민이의 말로 끝이 납니다. 성민이의 말에 다운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성민	“그리고 말이야. 다운이 네가 손 사인 보내는 것 내가 다 봤어.”
다운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마지막 쪽지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 모금함에 넣으려고 그러니? 그냥 놀아.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도움 사람 많아.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돕기로 했잖아?”

그렇게 대답해 놓고 이를 어찌면 좋을까? 정신을 차려 보니 내가 어느덧 게임방에 앉아 있었다. 두 시간이 언제 지나가 버렸는지 이천 원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주었다. 바보, 바보, 바보, 김동현 바보. 그러다가 내가 또 무얼했는지 어이가 없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유희왕 카드를 산 거다. 난 왜 이러는 걸까? 그때서야 모금함이 생각났다.

(나) “선생님, 여기 한 장 더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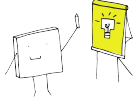
수지가 마지막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외할머니가 준 용돈으로 닭꼬치 사 먹고 게임 하느라 다 써 버리고 십 원도 못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넣을 것을 맹세합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다. 가슴을 손으로 꼭 눌렀다. 다음번엔 나도 꼭 넣을 거다. 꼭! 김동현 내 이름을 걸고 약속! 안 그러면 내가 한솔이 동생 김동현이다.

1. 동현이는 자기 돈을 쓰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2. 다음에는 꼭 모금함에 돈을 넣을 거라 다짐하는 동현이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 주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도우미 마중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제 친구 은유 엄마도 바빠서 도우미를 부른대요. 그런데 엄마, 그 도우미가 우리 반 엄마였대요.”

“뭐라고? 그럼 우리 집에도 혹시 학부모가 오는 것 아냐?”

이크! 엄마의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집안 꼴을 어떻게 도우미에게 보이느냐고.”

엄마의 두 눈꼬리가 내려갔다.

“그럼, 우리가 대충 정리하고 부르면 되잖아요.”

“맞아! 좋은 생각이야.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

(나) 또르르!

내가 굴린 연필이 방바닥에 짹 깔렸다.

“연필 장사해도 되겠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첫 번째 꿈이 연필 장사였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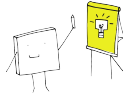
내 말에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어머! 여기 내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게 제 배꼽이에요?”

“이건 외할머니가 실을 걸어 빼 준 젖니예요.”

우린 물건들 틈에서 이런저런 추억거리를 찾아냈다.

1. 청소해 주는 도우미를 부르고 가족들은 왜 직접 청소를 했나요?
2. 청소를 하기 전과 청소를 한 후, 가족들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인상 깊었던 인물 하나를 꼽아 그 인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 보세요.
3. 청소를 하며 가족들은 여러 추억들을 찾아냅니다. 나에게도 추억이 깃든 물건이 있나요? 어떤 물건인지 소개해 주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되돌아 달린 아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겼다! 이겼다! 우리 청군 이겼다!”

응원석의 아이들이 하얀 트랙 선까지 몰려 나갔다. 다 같이 고함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그때였다.

동찬이 눈앞에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가 손뼉을 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

손뼉 소리는 거대한 자동차 소리로 다가왔다. 동찬이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뺑소니차만 아이였더라도,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도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라던 아빠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동찬이는 천천히 걸음을 뒤로 돌렸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일어서고 있는 백군 선수에게 다가갔다.

“달려라. 고동찬.”

“야, 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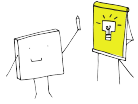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에그! 저 바보 같은 자식.”

동찬이는 천천히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에잇, 바보 왜 되돌아가는 거야.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지.”

아이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동찬이는 절룩거리며 일어서는 백군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1. 동찬이는 넘어진 백군 선수를 보며 누구를 떠올렸나요?
2. 동찬이는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되돌아와 백군 선수에게 손을 내밉니다. 왜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3. 우리 학교 운동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 거 같나요? 내가 청군이라면 동찬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을 거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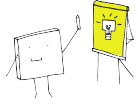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넌 혼자가 아니야>의 ‘성민이’와 <아무도 없을 때>의 고양이 ‘소리’는 각각 친구와 언니를 구합니다. 성민이와 소리가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할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성민	
소리	
성민	
소리	
성민	
소리	

2. 다섯 가지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를 골라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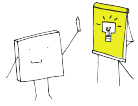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수신호를 조사해요

※ <넌 혼자가 아니야>에서는 친구들끼리 정한 사인 덕분에 다은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수신호들이 있어요. 표에 적혀 있는 사인을 조사해서 적어 보세요.

이름	블랙 닷 캠페인
어떨 때 하는 사인인가요?	
어떻게 하는 사인인가요?	
누군가 이런 사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	틱톡 수신호
어떨 때 하는 사인인가요?	
어떻게 하는 사인인가요?	
누군가 이런 사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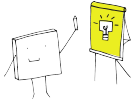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나눔 계획 세우기

※ 나에게 용돈 만 원이 생긴다면 나는 얼마를 모금함에 넣을 건가요? 나의 용돈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또 나를 위해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금함에 넣을지 고민해 보고 용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 :

날짜	내용	들어온 돈	나간 돈	남은 돈
월 일	할머니에게 용돈 받음	10,000원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시 답안) 학교 운동회 장면인 것 같다. 운동회 계주에서 두 친구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p> <p>2. (예시 답안) 오른쪽 친구: 부족해 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결승전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 왼쪽 친구: 친구니까. 당연하지.</p> <p>3. (예시 답안) 마음이 시원할 것 같다. 또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할 거 같다.</p> <p>4. (예시 답안) 미나. 미나는 내가 힘든 일을 얘기하면 잘 듣고, 공감해 준다. 그러면 나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p>
3쪽	<p>1. ① 빈정거리다 ㉠ ② 콧방귀 ㉡ ③ 어수선하다 ㉢ ④ 애태우다 ㉣ ⑤ 손나팔 ㉤</p> <p>2. (예시 답안)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다.</p>
4쪽	<p>1. (예시 답안) 도와줘!</p> <p>2. 성민이의 엄마</p> <p>3. ⇨ (예시 답안) 고마워. 네가 손 사인을 알아봐 준 덕분에 살았어.</p>
5쪽	<p>1. (예시 답안) 함께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 아프리카 친구를 돕고 싶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서.</p> <p>2.</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예시 답안) 동현이에게</p> <p>동현아, 모금함에 돈을 넣으려고 한 것만으로도 큰 결심을 한 거야.</p> <p>나였으면 돈을 넣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 같거든. 나도 너에게 배웠어.</p> <p>다음엔 꼭 진짜 모금함에 돈을 넣길 바랄게. 그리고 나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 보려고 해. ***가</p> </div>
6쪽	<p>1. 청소 도우미로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가 올까 봐 청소를 했다.</p> <p>2. (예시 답안) 누나 / 사춘기라 말을 별로 하지 않고, 내 방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청소를 하면서 내 방에도 들어오고, 가족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p> <p>3. (예시 답안) 강아지 모양 열쇠고리 / 1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와 함께 사서 나누어 가진 추억의 물건이다.</p>
7쪽	<p>1.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렸다.</p> <p>2. 엄마가 뽕소니를 당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을 떠올리고, 백군 선수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p> <p>3. (예시 답안) 동찬이를 응원하고, 잘했다고 말해 줄 거다. 운동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p>

8쪽	1.	성민	⇒ (예시 답안) 고양이인 내가 사람을 구하다니 정말 놀랐어!
	소리	나는 소리 언니랑 마음이 잘 통하는 가족이거든. 그래서 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단번에 알 수 있었어.	
	성민	나도 사인으로 다은이의 상황을 알았어.	
	소리	대단해. 위험을 알고, 얼른 대처한 것도 참 잘했어.	
	성민	고마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리	맞아. 나도 언니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2. 가이드) 표지에는 그림과 제목, 작가, 출판사 로고 등이 들어갑니다. 먼저 표지를 살펴본 뒤에 나만의 표지를 만들도록 지도해 주세요.		
9쪽	이름	블랙 닷 캠페인	
	어떨 때 하는 사인인가요?	⇒ (예시 답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가정폭력 가해자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어떻게 하는 사인인가요?	⇒ (예시 답안) 손바닥에 검은 점 하나를 찍은 뒤에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SNS에 올리면 된다.	
	누군가 이런 사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시 답안)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린다.	
	이름	틱톡 수신호	
	어떨 때 하는 사인인가요?	⇒ (예시 답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폭력, 납치 등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어떻게 하는 사인인가요?	⇒ (예시 답안) 먼저 엄지손가락만 접고 다른 손가락을 짝 편 다음 엄지손가락을 감싸 접는다.	
	누군가 이런 사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시 답안)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린다.	
10쪽	<p>내가 두고 싶은 사람 : ⇒ (예시 답안) 텔레비전에서 난민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살던 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친구들을 두고 싶다. (용돈 계획 답안 생략)</p>		